

세계은행 간부들 초청파티

김만제(金滿堤)

〈1971~82 원장·국회의원〉

햇수로 11년을 KDI 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또 직접 겪은 숨은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중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하겠다.

남덕우 씨가 부총리에 취임한 후의 일이니까 1974년 말경이나 그 다음 해 초쯤의 일이었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치솟고 외채가 누적되고 해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다.

그때 나는 세계은행에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겸 워싱턴 D.C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마침 남덕우 부총리도 세계은행에 차관을 교섭하기 위해 그곳에 오셨다.

공식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남덕우 부총리는 세계은행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만찬모임을 열게 되었는데, 이 모임에 나도 참석하라는 부총리의 지시가 있었다. 내가 아는 세계은행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당시는 출장 경비를 아끼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을 때여서 이런 만찬 스케줄이 있어도 부부동반 해외 출장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때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만찬파티에 으레 부부동반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파티 초청장도 그렇게 보냈고, 단신으로 미국에 온 부총리와 나는 매우 난감했다. 주미대사관에서 수배해 준 여성도 파티장에서 봉사할 몇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궁리 끝에 나는 구본호 박사 부인에게 협조를 부탁해 보기로 했다.

당시 구본호 박사의 부인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KDI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 박사와 떨어져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구 박사 부인을 만나 전후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죄송하지만 파티장에 나와서 임시로 내 부인 역할을 해 줄 수 없느냐고 사정을 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구 박사 부인은 쾌히 승낙을 해 주셨다. 자기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KDI 원장의 부탁이어서 승낙한 것이 아니라, 그 파티의 성격이 나라의 경제 외교를 위해 중요한 행사라는 것을 알고 한국인으로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승낙을 하면서도 구 박사 부인에게는 걱정이 있었다.

“파티에 나가는 것은 좋은데 파티복이 없어서...”

말끝을 흐리는 구 박사 부인의 사정을 나는 바로 이해했다. 남편은 4년 전에 한국에 나가 있고, 혼자 미국에 남아 의사 일을 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맡고 있었으니 파티에 나갈 기회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래서 부인의 양해를 얻고 100달러 정도를 드려 파티복을 사 입고 나오시게 한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정책을 수행한 사람들의 업무 환경은 이처럼 어려움이 많았다. 이 에피소드는 KDI가 정부의 경제 외교에 도움을 준 여러 일 중의 하나였다.

1970년대에는 국내 저축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마다 한국에 대한 실적 평가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세계은행을 비롯해서 IMF 등의 협력을 받아 상업차관과 공공차관을 들여와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요즘처럼 통상마찰의 해결이나 통상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서 대외 신용도를 유지하고 차관을 되도록 많이 얻어 오는 것이 경제정책 당국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내에서 영어에 능통하면서 실물경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세계은행 등 차관업무와 관련된 기관과 공동 연구도 하면서 개인적 친분을 쌓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KDI뿐이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하여 KDI 수석연구원들은 정부의 차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많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많은 사례들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 출장 길에 남덕우 부총리의 차관 외교를 돕기 위하여 구분호 박사 부인을 우리 집사람 대신 파티장에 모시고 갔던 일 역시 그런 활동의 하나였다고 생각되어 옛날 기억 하나를 되살려 보았다.